

ENR가 뽑은 '2008 뉴스메이커25인' 예선정

김 경 준 삼성물산 건설부문 버즈두바이 현장소장(상무)

“ 버즈두바이 건설은 첨단 기술을 집약시키고 현실화하는 과정 ”

“ 초 고층건물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려는 한국인의 정서와 어울립니다. 버즈두바이를 짓는다는 것은 최신 구조 설계, 건설 재료, 공사 방법, 건설 관리 이론 등 현존하는 첨단 건설 기술을 집약시키고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지금 삼성 건설은 그 도전과제를 한국인의 도전 정신으로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

지난 1월 세계적 권위의 건설 전문지인 ENR이 발표한 2008 뉴스메이커25인 예선정된 버즈두바이 김경준 현장소장은 “ 앞으로 꾸준한 연구 개발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버즈두바이의 기술과 경험이 바탕이 된 새로운 기술로 다음 초고층 건물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ENR은 지난 한 해 동안 혁신성과 성과 측면에서 두각을 보인 화제의 인물 25명을 선정하면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김경준 소장을 포함시켰다. 창간 100년이 넘는 ENR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건설 전문 잡지로 한 해 동안 보도한 건설 인물 중 가장 혁신적이고 성과를 이뤄낸 인물을 ‘올해의 뉴스메이커’로 선정,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수홍 AMEC Korea 대표 겸 인천대교(주) 대표이사가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두 사람이 관여된 사업 모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사업 능력과 기술이 전 세계 건설 업계로부터 주목받고 있



다는 방증이다.

ENR지는 “ 버즈두바이가 2008년 한 해 동안 세계 최고 인공 구조물 등 각종 기록을 경신하면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는데는 공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경준 소장의 역할이 크다 ” 고 평가하였다. 국적과 사용하는 언어가 다양한 30여 개 관련 업체와의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수천명에 이르는 현장 근로자를 진두지휘하면서도 순조롭게 공사를 이끄는 리더십이 2008 뉴스메이커25인 예선정된 이유인 것이다.

김경준 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초고층 전문가로 많은 초고층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1997년부터 해외 초고층 건축 현장을 누비며 말레이시아 KLC타워(88층 · 452m) 현장소장을 지냈다. 타이베이

금융센터 빌딩은 본사에 있으면서 직접 관리하기도 했다. 이어 2007년 1월부터는 지금의 버즈두바이 현장소장으로 부임해 세계 최고 건축물 건설의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버즈두바이 현장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베시스, 아랍텍의 통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삼성물산 이리딩업체로서 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데 구성원이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등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몰려온 전쟁한 기술자 160여 명과 인도, 파키스탄 등지의 9,000여 명 기능공들이 삼성의 지휘 아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의 삼성물산 건설부문 소속 직원은 30명. 대부분 핵심 기술자다.

2004년 수주 당시 버즈두바이 공사 금액은 8억 7,6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에스켈레이션 조항이 적용되는데다 세계 최고 빌딩을 건설하겠다는 발주처의 의지로 지속적인 설계 변경이 이뤄져 현재 공사비가 12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김경준 소장은 “ 버즈두바이 공사 수주는 기술과 공정 관리, 풍부한 경험의 합작품 이라면서 ” 외화 가득 외에도 한국 건축사와 건축 시공 기술 발전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버즈두바이는 그야말로 ‘노다지’ 현장으로, 이 공사를 통해 두바이에 진출하면서 추가로 20억 달러가 넘는 건설 공사를 따냈다고 말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